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4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승리만을 떨쳐온 영광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관람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당으로,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존엄높은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상최대의 경의를 드리었다.

출연자들은 창건된 첫날부터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새겨안고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주며 인류사에 일제기 있어본 적이 없는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고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담은 시대의 송가들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끝까지 가고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구가한 공연은 관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는 길에 충성과 헌신의 자욕을 뚜렷이 새겨갈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농촌마을들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에서 새집들이 시작

양덕땅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게 될 보금자리들이 솟아났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산간벽촌이 어제날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떠선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으로 산경을 펼쳐졌다.

한폭의 그림처럼 회한하게 변모된 문화농촌들의 아담한 살림집들에는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 등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있다.

관광지구의 풍치를 돋구며 산간벽촌의 특성에 맞게 소총과 단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일떠선 마을들에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새로 건설된 온천관광지구 농촌마을을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들이 6일 양덕군 온정리, 삼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 법동군 상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양덕군 온정리, 삼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 상신리, 상성리, 사기리와 법동군 상서리에 새로 꾸려진 마을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주인들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들이를 하였다.

멋들어진 새 집을 받아안은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마을마다에서 울려나오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친부모의 정에도 비기지 못할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새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주민들과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조선로동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본사기자



어머니조국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해외동포들은 자나깨나 어머니조국을 마음에 소중히 안고 살고있다.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하순 일본 사이다마현에서 국제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던 날에 있는 일이다.

공화국의 체육선수단이 이 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은 사이다마지역 동포사회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공화국선수단은 비행장에 도착할 때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동포들도 모두가 성수가 나서 떨쳐나섰다.

대규모의 환영모임을 마련해주고 축하의 노래춤바탕을 펼쳐놓았다. 녀맹원들은 호렷시사가 입에 맞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김치를 비롯하여 성의껏 마련한 민족음식들을 매일 날라다주며 친어머니심정을 다하였다.

언제인가 설맞이공연에서 지역땅 일본땅에서 보란듯이 경기를 진행하는 조국선수들의 모습을 보던 동포들이 솟는다고 하면서 동포들은 대령공화국과 출전한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프랑카드를 펼쳐 들고 목청껏 응원하였다.

오족했으면 공화국의 선수, 감독들이 마치 조국땅에서 경기하는듯한 감을 느끼었다고 말하였었다.

선수단이 총련 사이다마조선조중급학교에 초청되어있을 때 맺은 일이다.

차에서 내리니 운동장에 서있던 나이린 학생들이 저저마다 고사리같은 손을 내밀며 선수, 감독들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동안 밖에서 기다렸는지 손들이 모두 차가웠다. 선수단성원들이 눈물을 적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이 감싸주자 학생들은 《조국이 참 따뜻해요.》라고 되이면서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친친관만한 동심이 비긴이 말속에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있었다.

언제인가 설맞이공연에서 지역땅에 내릴 뎨 차고차던 설눈도 조국에서 맞으니 따스하다고 노래부르던 동포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선수단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고 한다.

30여년전에도 이 학교에 조국선수단성원들이 찾아온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나이린 학생이었던 총련 사이다마현 서부지부위원장 리봉태동포는 조국선수들과의 상봉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몸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혈육의 정을 나눌수 있게 하는 귀중한 계기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지역땅에서 민족의 님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하고 혈투는 모략보도들이 하루도 그칠새없이 지면과 화면을 어지럽히고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지만 지역에서 사는 아들딸들은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심장속에 안고 살고있는것이다.

뉘를 주고 뜻을 주고 정과 사랑을 주는 어머니조국을.

본사기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전체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흐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령도자의 위대성,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10월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애와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 어머니당이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리념을 내세우고 인민의 지지를 모색하는 당들이 많다. 각양각색의 정당들 가운데서 조선로동당과 같이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신뢰받는 당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신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의 운명과 존엄, 행복을 위하여 70여성상의 령정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강위력하고 집도양양한 불패의 당으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어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권력이나 권력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 신조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나라와 인민이 최악의 시련을 겪던 나날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어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소현의 강추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도 가림없이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성산의 칼바람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바다길, 철령과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성초소들과 전진길에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의지를 가득담으시고 길고결이신 헌신의 자욱이 새

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새 세기의 첫째 에만도 3만여리의 로정을 거쳐 130여개의 단위의 인민군부대, 구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나라의 군력을 비상이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자위적군력 강화로 적대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장들과 야금기지, 기계제작기지, 경공기업지들과 축산, 가공, 양어기지들, 문화정서생활기지, 봉사기지를 찾고찾으시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신장양어장, 갈마구장, 만수대거리, 보통문거리고기상점, 개선청년공원유회장, 황진은천마을 등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곳마다에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였다. 그것은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오로지 부강번영할 조국의 매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애국지사, 강철의 의지와 끝없는 헌신이 안아온것이다.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어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강성변역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오늘 만방에 펼쳐지는 조선로동당의 절대적령위, 사회주의조선의 위상, 인민의 존엄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세우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침략위협과 가혹한 제재봉쇄하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운명과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의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급상승하고 이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여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다. 인민애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지겨히여!》라는 구호가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인민을 위한 방대한 대건설이 진행되고있다.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들의 생활상고종과 마음속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하여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것도 나라의 억만국력이 급상승하고 이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여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다. 인민애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지겨히여!》라는 구호가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인민을 위한 방대한 대건설이 진행되고있다.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들의 생활상고종과 마음속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하여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것도 나라의 억만국력이 급상승하고 이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여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다. 인민애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지겨히여!》라는 구호가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인민을 위한 방대한 대건설이 진행되고있다.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들의 생활상고종과 마음속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하여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것도 나라의 억만국력이 급상승하고 이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여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인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소식인즉 서유럽의 한 탐험가가 사람의 발자욱이 아직 찍히지 않은 남극대륙에 올라 세계자연지도에조차 표기되지 않은 극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꽂는것으로 탐험의 결속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두고 세계언론들은 이 탐험가가 어떻게 되어 남극대륙에

하지만 조선은 세계무대에서 자주의 강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하다는것이 오늘날 행성의 등불로 빛을 뿌리는 조선이 말하여주는 진리의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지위는 곧 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늘날 공화국이 이룩한 세상을 들었더는 특대사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그이를 가장 결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그분의 뛰어난 자질과 출중한 품모는 만민을 매혹시키고 있다.》

이것은 로씨야의 한 인사의 고백만이 아닌 온 인류가 한목소리로 터치는 흠모와 칭송의 메아리이다. 위도와 경도를 넘어 세계언론들과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탁월한 령도자》, 《예상을 뛰어넘은 탁월한 령도자》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자주와 정의, 진보의 밝은 빛으로 누리에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필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위생안전성을 지키도록
주제108(2014)년 8월 어느날 갈마시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들중의 하나는 위생안전성문제였다. 종합조종실의 컴퓨터화면에서 나오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신 그이께서는 식료가공에 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가공공들에게 1회용장갑을 끼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발에 덧가바를 신고 들어오도록 병원입구에 덧가바의우는 장치를 설치해 놓고 리용한다는데 대하여 말씀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도 그런 장치를 설치하여 참관자들이 리용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너 자위생용품과실물에 있는 맹운공기앞에 이르시어서는 1차가공실에 맹운공기가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하여 서도 가공실업의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하시였다.

동방의 밝은 빛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은 당시 외래침략자들에게 짓밟혀 거진 《등불》로 되었던 것이다. 동방을 밝게 비칠 조선의 미래에 대한 기원이 담긴 이시가 창작된지 어느덧 한세기를 가까이 하고있다. 오늘날 조선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선은 동방만이 아닌 온 행성의 밝은 등불로 빛을 뿌리고 있다. 세계지도우에서 보면 조선은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지만 오늘 세계의 각광을 받고있다. 언젠인가 서방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하여졌다.

대한 탐험을 떠나면서 동방에 자리잡은 조선의 국기를 가지고 갔는가에 대해 조짐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서방동신은 이것은 조선이 지구를 대표한다는 세계민심의 반영이라고 분석하였다.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국호는 있어도 지위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재부가 넘쳐도 힘이 없어 사대과 굴종을 숙명처럼 간직 한 나라도 있다.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나는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설사 문철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고 하시며 조국앞에 시련이 막아질 때마다 마음의 신데렐라를 더욱 조이고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고계신다. 남들 같은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오

본사기자 리경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통령 폐지공장을 찾으셨을 때는 주제105(2016)년 8월 어느날이었다. 그이께서 1호동 비육사로 들어가시려고 출입문을 여실 때 공장 사이에 폐지냄새가 세계 단군고도를 지나가는 탁월한 령도자》, 《예상을 뛰어넘은 탁월한 령도자》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자주와 정의, 진보의 밝은 빛으로 누리에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통령 폐지공장을 찾으셨을 때는 주제105(2016)년 8월 어느날이었다. 그이께서 1호동 비육사로 들어가시려고 출입문을 여실 때 공장 사이에 폐지냄새가 세계 단군고도를 지나가는 탁월한 령도자》, 《예상을 뛰어넘은 탁월한 령도자》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자주와 정의, 진보의 밝은 빛으로 누리에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필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유기질 복합비료직장으로 가져다 하시였다. 폐지배설물을 가지고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그곳은 비육사보다 더 역한 배설물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지만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므로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순양함 《아브로라》 호 모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제108(2014)년 10월 로씨야 달베르스프루이 건설유한책임회사 사장이 조선을 방문하여 삼가 올린 선물입니다. 사장은 도서들과 례화물들을 통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어 순양함 《아브로라》 호 축소모형을 선물로 마련하였다. 1917년 순양함 《아브로라》 호가 올린 표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공승격이 개시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로라》 호는 사회주의10월혁명의 상징으로 되었다. 공예품으로 제작된 배는 물에 띄우고 원격조종기로 조종하여 움직이게 되어있다. 48cm. 너비 17.5cm이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사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을 담아 순양함 《아브로라》 호 모형을 선물로 드리시길 한다고 말씀하였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여

오늘 우리 겨례는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겨례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실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가슴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 절세의 애국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온 겨례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 힘있게 불리우시게하셨다.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었고 간곡한 유언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그이께서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통일위업실현의 역사의 토대이고 고귀한 밑천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

자면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불멸의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신념이요 의지였다. 그 의지,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이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영원한 지침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그에 기초하여 자주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려사의 광범한 평전에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외교의 업적은 통일위업실현의 역사의 토대이고 고귀한 밑천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

으로 남녘의 겨례들과 해외동포들을 품에 안아 조국통일의 한걸음 이끄시며 민족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정치는 온 겨례를 차별없이 대해주시며 민족과 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나가신 아버지수령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계승이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에 애국의 뜻과 불면불휴의 헌신이 있어 조국통일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사상 자주통일시대의 자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이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영원한 지침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었다.

조국통일은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겨례의 간절한 숙원이다. 겨례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안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실 위대한 구상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포용력으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더불어 자주통일시대를 힘차게 전진하는 속에도 한 차폐의 려사적 업적을 이룩하셨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어버이수령님의 투철한 민

족자주사상과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뜻이 응축되어있다.

공파사나을 려사를 헤쳐오면서 우리 겨례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이야말로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해 나서는 사람이라던 그 누구와도 손잡고나가신 아버지수령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계승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온 민족의 심금을 틀어잡았으며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달리하는 각계각층 동포들을 통일에국투쟁으로 한걸음이 밀기시켰다.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도에 우애고히 올라섰으며 북남관계에서는 놀라운 사변들이 연이어 창조되었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신음하던 우리 겨례는 뜨거운 혈연의 정을 나누며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성취를 위한 길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고 통일이국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 기대한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애국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주통일위업은 려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을 뚫고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나라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례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애국의 의지를 받들어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것은 해내의 온 겨례의 한결같은 신념이요 의지이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도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셨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귀한 헌생을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

통일의 서장이 비치듯 하다 분렬상태가 지속되고 북남사이의 긴장상태가 풀리는 듯하다 전쟁상태로 되돌아가준 한 1970년대의 정세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열망과 국제적지지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도를 마련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당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민족이질화》를 수사로 통일의 불가능성을 로연성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다들었다.

《유신》파싹크래가 수립된 그후에 대한 이른바 《민족이질화론》은 한쪽을 이어온 조선민족이 이런저런 요인에 의하여 북과 남에서 점차 민족적동질성을 상실당하여 서로 다른 민족으로 변했기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주장하는 반민족적인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이질화론》은 《민족이질화되었다》 때문에 통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통일을 해도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뒤 후반기에 가서나 가능하다.》는것이였다.

외세의 종조밀에 남조선집권자들이 별의별 개념을 다 늘어놓으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고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통일방도를 정립하는 데는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민족사적과제와 나서고있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옹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제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려사적인 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도를 천명하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

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우에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로 통합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지 않고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분렬된 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적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 방안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것은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각각 선출하는 동등한 수의 대표들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이 통일정부의 지도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자기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통일국가를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전면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지도밑에 두개의 지역정부들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 자체를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을 말하여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공화국에서 196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통일의 중대시책으로서의 북남련방제안은 달리 조국통일을 완전히 실현하는 방도로 제시된 새로운 통일방안이다.

북남련방제안이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이 가능한 과도적대책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창립으로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는것이다. 북남련방제가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선거를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정부를 련합한 하나의 통일련방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면서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정치강령, 경제강령, 군사강령, 문화강령 그리고 외교강령으로 나누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련방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조선민족의 공동된 지향과 요구,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국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고는 가장 애국적으로 평화에호적인 정부시정방침이다.

이렇듯 공화국이 제시한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공화국정부의 자주로선과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북과 남의 안팎의 현 실정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게 설계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였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은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으로, 《민족의 진로를 명시하는 빛나는 화물》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면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으며 해외동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해나갔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는것이였다.

이것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전면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지도밑에 두개의 지역정부들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 자체를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을 말하여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공화국에서 196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통일의 중대시책으로서의 북남련방제안은 달리 조국통일을 완전히 실현하는 방도로 제시된 새로운 통일방안이다.

북남련방제안이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이 가능한 과도적대책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창립으로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는것이다. 북남련방제가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선거를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정부를 련합한 하나의 통일련방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면서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정치강령, 경제강령, 군사강령, 문화강령 그리고 외교강령으로 나누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련방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조선민족의 공동된 지향과 요구,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국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고는 가장 애국적으로 평화에호적인 정부시정방침이다.

이렇듯 공화국이 제시한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공화국정부의 자주로선과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북과 남의 안팎의 현 실정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게 설계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였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은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으로, 《민족의 진로를 명시하는 빛나는 화물》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면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으며 해외동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해나갔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수기 통일을 그리며 북과 함께 (1)

작가 김상훈선생의 경력

남날: 1919년 7월 10일

남곳: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빈가정출신으로 4~5살때 남의 집 양아들로 들어가 살았음.

1940년 4월—1944년 10월까지 학도병사진으로 징용, 원산철도공장에서 로동.

1944년 10월—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민족해방혁명동맹단체로 체포, 서대문형무소 사상범미결수로 있다가 나올.

그후 잡지 《민중조선》과 신문 《독립신문》 편집장.

1950년 7월 10일 의용군에 입대, 조선인민군 제937군부대 부부, 부상, 전라적인일시적후퇴시기 조선혁명군과 6대대 정치부 문화과장.

1951년 조출판사(당시) 편집부에서 일함.

1958년—1959년사이 락원기계공장 현직과전.

1962년 2월—1987년 8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제 아버의 얼굴도 못 본채 어른이 되어버린 손자와 손자가 너무도 제 아버를 닮아 자주만 마음이 저릿해오는 늙은 할머니가 마당가에 함께 서서 철새를 보고있다

달은 누워누워 산머리에 걸앉는데도 철새들은 날아와 어느 강가에 내리려는지 날개를 쭈욱 펴며 매돌아 본다

철새의 등에 실려 홀리간 세월은 일흔번의 겨울이요, 일흔번의 봄인데 남북의 길은 하늘에만 열려있어 할머니와 손자는 땅이 서렵다

... 호르는 물결기가 바다를 이루듯 환풍으로 모아야 할 만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줄에 얽매어 있어 철육의 몸부림을 겹겹이 쌓안고 할머니와 손자가 철새를 보고있다

(작가 김상훈의 시 《철새》에서)

* * * 나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나의 아버지 김상훈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솔직하게 알려달라는 한 해외 동포의 청탁을 받고 이 글을 쓴다. 미흡한 점이 많은 이 글을 인터넷에 태워 보내준 저 아직 아버지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주시는 해외동포 여러분과 남녘동포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서글픈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1954년경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이 갓 끝난 그때 평양에는 조출판사가 있었다.

어스름한 저녁 스물일곱의 작고 영민하게 생긴 나인이 원고결제를 받으려고 편집국장방에 들어갔다. 국장은 너인파는 대조되게 키가 크고 잘 생긴 사람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남반부입니다.》
《가족이 함께 후퇴했소?》
《말만 데리고...》
《나도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자식들도 있소...》

저녁해가 희미하게 토굴집 창가를 비추고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 아기의 키가 더 자라면 그뎨 되려나 문지방에 닿으면 설마 되겠지 중문에 가지런하면 그뎨야 되요야말겠지

키돋음도 하게 하고 키맞춤도 하게 하며 안락하게 기다리며 자라는 이 아들이

밥소서, 서른고개를 넘어 서고있습니다

꿈이 허사인줄 누군들 모르랴만

그때도 잊고 지내는 밤들이 있을가봐 꿈에라도 오라고 빌면서 잠드는 통일입니다

(작가 김상훈의 시조 《키》에서)

이렇게 함께 산 부부가 행



복했을까? 나는 행복하였다고 단언한다.

보통 물리로는 도저히 행복할수 없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였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에서 아버지의 가슴을 그리도 아프게 하면서 훌쩍 서른살을 넘기던 자식, 지금은 60살을 넘어선 작가 김상훈의 아들이기때문이다.

아버지는 행복하였다. 어머니(류희정)의 말에 의하면 토금처럼 배우를 써다준것이 아니고 밭에서 나누어주었다는 데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어린 내 어깨까지 배우를 썼어주었다. 처음에는 동승에 풍뎨던 나였지만 지금은 배우를 언제든 다 나를 지,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도 토방에 걸려있어 쓸쓸히 한숨을 내쉬는 의로운 풍경이었다. 남조선의 숙명녀대 가사와 중태생인 어머니도 아마 그 때 대학에서는 배우보지도 못한 가사일에 착각했던것

들이 항상 우리 집안방을 빙 둘러 차지하고 한지도 베끼고 흔적 배집도 하면서 《공자말맹자왕》 하고있었다.

기능공들보다 세배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득직해보이는구나 내가 두드려 만든 탐시기 증기회전축이여

모다소리 가별로 울리면 너는 와야할 새채게 감아 우리의 보장처럼 소소리높이 벽체를, 아름다운 창문을 울음과 노래가 꽃밭으로 피어날

인민들의 행복을 담아 울리겠구나

뚜렛이 가슴에 안겨온다 불로크를 매달고 더 높이, 더 높이 올리려하고 손짓하는 조립공의 모습이 수수가 나서 스위치를 넘으며

보조계에 우물치는 운전공

왜 그뎨 사실을 밝혀지 않았느냐고 아버지에게 묻은적이 있다. 아버지는 오랜 버릇대로 두손가락으로 코알을 자주 만지던데 장성한 아들을 함양이나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였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것도 아니었고 나 자신도 구태여 그것을 깨닫히기가 싫었다. 물론 나는 철이들어서 나라도 내 나라는 아년 빼앗긴 식민지이고 가족맹 맹적이 없었다. 남조선에 고향을 둔 아버지에게 자기기의 시를 추어올리던 사람들밖에 보증해줄 사람들이 없었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증해주지 않아 작가동맹 맹적자를 가질수 없었던것이였다.

리유인국은 아버지께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발표한 시때문이었다. 《나는 불우한 식민지조선의 지주집자식, 해방과 함께 아버기를 잃었으니, 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잡고 저 항쟁의 거리, 환희의 거리로 달려나갈수는 없소냐?》하는 내용의 시가 문제라는것이다.

각기들도 물론 왜정때 부자모자를 쓰고 풍부한 자식집자식은 부인되지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주집자식이라고는 왜지지 않았다는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사실 나의 아버지는 지주집자들 중 집어오면 그속엔 또다락도 있고 풍풍 찬 든도 있어. 난 그걸 어떻게 끊어버릴 힘이 없었다. 자식이 발은 양가집에서 나를 일찍 장가보내며 거기엔(남조선)네 형과 누나들—내 자식이 다섯이나 있다.》

아버지는 슬머시 고개를 돌리는데 잔등이 자꾸만 가늘게 떨리었다.

김종섭(김상훈의 딸들)

수기 통일을 그리며 북과 함께 (1)

작가 김상훈선생의 경력

남날: 1919년 7월 10일

남곳: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빈가정출신으로 4~5살때 남의 집 양아들로 들어가 살았음.

1940년 4월—1944년 10월까지 학도병사진으로 징용, 원산철도공장에서 로동.

1944년 10월—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민족해방혁명동맹단체로 체포, 서대문형무소 사상범미결수로 있다가 나올.

그후 잡지 《민중조선》과 신문 《독립신문》 편집장.

1950년 7월 10일 의용군에 입대, 조선인민군 제937군부대 부부, 부상, 전라적인일시적후퇴시기 조선혁명군과 6대대 정치부 문화과장.

1951년 조출판사(당시) 편집부에서 일함.

1958년—1959년사이 락원기계공장 현직과전.

1962년 2월—1987년 8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들이 항상 우리 집안방을 빙 둘러 차지하고 한지도 베끼고 흔적 배집도 하면서 《공자말맹자왕》 하고있었다.

기능공들보다 세배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득직해보이는구나 내가 두드려 만든 탐시기 증기회전축이여

모다소리 가별로 울리면 너는 와야할 새채게 감아 우리의 보장처럼 소소리높이 벽체를, 아름다운 창문을 울음과 노래가 꽃밭으로 피어날

인민들의 행복을 담아 울리겠구나

뚜렛이 가슴에 안겨온다 불로크를 매달고 더 높이, 더 높이 올리려하고 손짓하는 조립공의 모습이 수수가 나서 스위치를 넘으며

보조계에 우물치는 운전공

정치간상배들의 도발망동

얼마전 남조선 《국회》가 《북의 핵고도화와 미사일도발규탄 및 제발방지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결의안》에는 공화국의 일련의 군사적조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면서 《북의 일체 군사적 《도발》 행위의 즉각 중단과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 등을 촉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정치간상배들의 과묵치한 도발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인들이 《식물국회》, 《동물국회》, 《전쟁국회》로 조소유린하는 남조선 《국회》에서 공화국을 걸고드는 그 무슨 《결의안》이 조작된것은 회대의 정치광대국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욕에 환장하여 서

로 물고뜰으며 개싸움을 벌려던자들이 동족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합쳐서 대패를 들구고있으니 이런 역겨운 무리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미국산 첨단무기도입에 미친듯이 열을 올리고 비밀리에 강행한 10여치의 탄도미사일시험으로도 부족하여 외국에까지 나가 미사일시험을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있는 주제에 그 누구를 문제치 않는 《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한것은 세상에 없는 희비극, 못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수 없다.

북남화해와 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정치식충이들의 소굴로 세인들의 지탄을 받는 썩은 오물통 《국회》에서 동족대결과 정세긴장을 조정하는 온갖 꾀변들이 쏟아져나오고 시대

착오적인 《결의안》이 조작된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이번에 《자한당》과 한 짝이 되어 도발적인 《결의안》을 조작함으로써 그들이 떠드는 《대화》와 《평화》도 거짓이라는것이 날날이 드러났다.

이것은 집권여당이라는것을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북남합의도 안중에도 없고 그 어떤 배신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그 집회라는데서 각종 비화들이 터져나와 각계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리명박, 박근혜 《정견》 시기 보수세력들이 《어버리합》, 《자유총련맹》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에 참가하는 주장년층에게는 45US\$, 로년층에게는 27US\$씩 지급했었다고 하면서 돈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초보민심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에도 각계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초보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박근혜관행을 불러온 초보투쟁이 후 또다시 타오른 초보의 바다라고 평하고 있다.

적폐세력청산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거세지는 초보시위투쟁에 당황한 《자한당》은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이에 맞불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그러나 그 집회라는데서 각종 비화들이 터져나와 각계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리명박, 박근혜 《정견》 시기 보수세력들이 《어버리합》, 《자유총련맹》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에 참가하는 주장년층에게는 45US\$, 로년층에게는 27US\$씩 지급했었다고 하면서 돈

필나게 벌렸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역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자들은 집회 참가인원을 불꾸기 위해 《강제징집령》을 내리고 금전을 부려가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지한것을 하였다 한다.

에 메인 어중이며중이들을 집회장소에 끌어들었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종은 몇푼의 돈때문에 집회에 나왔다니 정말로 불쌍하다.

보수집회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만든 《군중동원집회》, 《금전집회》라고 조소를 보내고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에만 눈독을 들인다고 박근혜관행이 뽀얍이 흘러나왔던 보수세력이 오개간만에 한자리에 모여들었다고 하지만 제각기 광화문광장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집회를 벌려놓았다고 한다. 그러다나니 집회에서 내뿜 구호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퇴진》,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퇴진》, 보수학생단체는 《법무부 장관대환》 등을 저마끔 떠들어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

론들은 《보수는 분렬의 집합체》라고 야유조소하면서 보수세력들을 비평하였다.

리성이 모자라면 란폭해지기마련이다.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악질보수세력들은 이번 집회에 참가하여 동등이까지 휘두르며 공공시설물들을 파괴하였는가 하면 휘발유통을 안고 청와대로 돌진하겠다고 날치는 바람에 주변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고 한다.

어떤 자들은 분위기를 돌렸다고 하면서 출입금지된 문화시설에 들어가 먹자판, 술판을 벌리고 또 어떤 자들은 상황을 취재하는 여성기자들을 성추행하다 못해 취재차량까지 파손시키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제 버릇 개 못준다》,

《폭력집회, 량장판집회》라고 략언하면서 범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들고 일어나고있다.

가관은 비친청을 등구며 현 집권자의 《하야》를 앞에서 떠들던 극우보수분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자가 집회를 더러운 돈벌이 수단으로 리용하여 여론의 조소거리가 된것이다.

이자는 집회도종 연단에 올라 《오늘 행사중 가장 좋은 시간이 왔다. 현급하는 시간이다. 제가 요즘 돈이 모자란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너까리며 집회에 참가한 보수세력자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하는 짓거리란 하나와 같이 더럽고 역겨운것뿐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최근 남조선정권에서 《국회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국회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란 《국회》의원자녀들의 대학입학 특혜의혹이 있었는가를 전부 조사할데 대한 문제로서 이것을 처음 제기한것은 여당이라고 한다.

지난 9월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라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 특혜로 이어지는 불공정성문제가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회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문제가 제기되자 《자한당》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립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에 따라 법무 장관에 대한 《국정》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있다.

《자한당》 원내대표 라경원은 《국회의원자녀 전수조사에 대해선 저희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조조사태가 정리된 후에 하는게 맞다.》고 하며 《사태진상과악을 위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것만으로도 부족할 부분이 있어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하자는 립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자한당)이 조국사태를 구실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법무부 장관문제를 더

욱 쟁점화하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또 다른 언론은 《국회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가 진행될 경우 제일 공정에 불립치는 《자한당》이라고 하면서 《부정부패의혹이 가장 많은 (자한당) 으로서는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문제》라고 하고있다.

우연한 평가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각종 특혜의혹으로 물머리를 앓고있는것은 《자한당》 패거리들이다.

원내대표 라경원은 아들이 미국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부당하게 문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과

요구하는 초보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자한당》이 황교안을 방해막으로 내세워 《국회》를 란장판으로, 폭력 《국회》로 만든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 하는것은 부질없는 망둥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자한당》이 《국회》란동사건을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는것을 비난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반역당의 강패무리를 가져앉이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이 부활과 재집권의 꿈을 꾸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적폐집단에 대한 민심의 분노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 전 원내대표 김성태 등이 자녀들을 불법적으로 《한국통신》에 입직시킨것을 비롯하여 자녀들과 관련된 《자한당》 패들의 각종 특혜의혹들을 짚자면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이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의혹을 구실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며 《국회》를 싸움판, 량장판으로 만들다못해 거리까지 뛰쳐나가 대규모시위를 벌리며 사회혼란을 조성하고있는것은 말그대로 뉘 물은 개가 될 똘은 개를 흉보는 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시간이 갈수록 썩어들어가는 《자한당》의 정체는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적폐청산을 이를 때까지 싸울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광주전남대학생진보련합과 국민주권련대 광주지역본부가 2일 광주지방법원청앞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청산, 《자한당》 해체를 위한 초보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자들은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데 대해 폭로하였다.

최근 신임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언론의 여론몰이는 언론개혁없이 는 사회대개혁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민이 서울에서 200만 초보를 든것은 적폐의 온상인 《자한당》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광주에서도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오래동안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며 독재권력의 시너로 존재해왔고 부패권력에 편승하여 명줄을 부지해온 검찰을 개혁하는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검찰이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을 구속하고 《자한당》 패거리들을 수사, 처벌하였다면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을것이라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한당》이 퇴사이나 칼끝을 국민에게 겨누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검찰개혁, 언론적폐청산, 《자한당》 해체의 구호 밑에 모든 국민이 전 지역에서 초보를 들어야 한다고 회견문은 강조했다.

회견문은 이를 위해 시민들이 2016년 금남로를 밝혔던 초보를 검찰청앞에서 다시 들고 하면서 적폐청산을 이를 때까지 싸울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들출수룩 악취만 풍긴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국회》란동사건에 연루된 당내패거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보려고 잔패를 부리고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얼마전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지난 4월에 있는 《국회》란동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범죄혐의로 물망에 올라있는 종개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것을 지시하고 검찰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것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황교안이 검찰에 자진출두한것은 죄를 범한 이들의 방패막이로 나섰으로써 그들의 완고도 엇고 저지른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려는데 있다.》고 비난해나서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황교안은 지난 4월 저들이 저지른 《국회》란동사건을 《불법에 저항한 정의로운것》으로 묘사하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섰다고 한다. 그 야말로 검은것도 흰것이라고 우겨대는 격이다.

《국회》란동사건으로 말하면 재집권야육에 미친 《자한당》 패거리들에 의해 벗어났건이다.

당시 《자한당》 패거리들은 주요개혁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것을 구실로 요란한 정쟁소동을 일으켜 조국정권을 장악할 심산 밑에 《국회》의 여러곳을 점거하고 망치와 장도리틀 비롯한 도구들까지 동원하여 란두국을 벌림으로써 《국회》를 또다시 《싸움판국회》, 《란장판국회》로 만들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패거리들은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이라는 나발을 불어대며 이에 대한 사건수사까지 거부해나섰다.

지금도 《자한당》 것들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대신 《국회》의장부터 먼저 조사하라며 막무가내로 버리고있다.

당국의 법무부 장관임명을 걸고들며 그 무슨 《검찰의 철저한 조사》에 대해 떠들던 《자한당》 것들이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고있는것은 불순한 정치목적에 따른것이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국회》란동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도리어 거리에 뛰쳐나와 삭발을 한다. 《장의 집회》를 연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는것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초보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자한당》이 황교안을 방해막으로 내세워 《국회》를 란장판으로, 폭력 《국회》로 만든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 하는것은 부질없는 망둥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자한당》이 《국회》란동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는것을 비난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반역당의 강패무리를 가져앉이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이 부활과 재집권의 꿈을 꾸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적폐집단에 대한 민심의 분노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자한당》도 이렇게 《장성》한게 아닙니다.

그 나날에 미국어른에게 유홍장건설을 허가해준 1961년 워커힐사건, 1966년의 사카린밀수사건, 일본에 제주도의 땅을 녹거리로 팔아먹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부정사건, 신하들에게 호화아파트를 나누어준 1978년 아바르 특혜분양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하지만 《유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간재했길래 백성도 《존재》한것 아닙니다.

우리는 먼산의 방귀소리로 여길뿐입니다.

《유신》님의 분신이신 《그네》공주가 득세하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굶어죽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를 먹고살게 해준 《근대화》 등은 《개발독재》라 하니 이를 어이 용납하겠습니까.

물론 려엄집아나네의 가락이, 귀걸이까지 뽑아내고 수많은 청장년들, 처녀들, 아이들을 팔아먹긴 했지만 《유신》님께서 미국산 잉어농산물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던 덕에 국민들은 깡보리밥이나마 먹을수 있었고 우리

《레밍》같은 민중이 얼마나 욱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네》공주를 남편을 잃은 후 먹고 살기 위해 절을 치거나 굶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선무당 박씨에게 홀려 조건봉건왕조의 멸망을 초래한명성황후에게 비기는것들도 있었습니까.

정말 너무했습시다.

임오군인폭동으로 총령도에 도망쳐와 황궁으로 돌아갈 날만을 학수고대하던 명성황후에게 박씨무당이 점을

《유신》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2의 5.16을 해서라도 《그네》공주를 다시 보셔다 당시의 시대록 꼭 부활시키겠습니다.

정 안되면 내라도 《유신》님의 《적자》가 되어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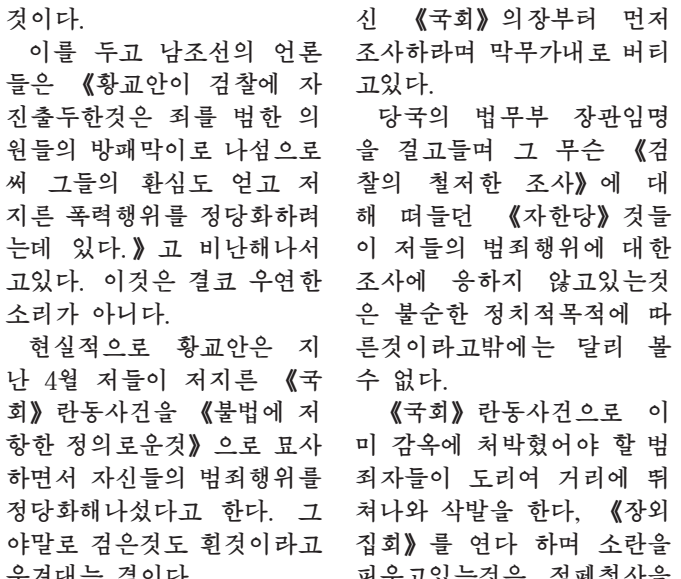
자, 마치 《유신》독재자의 《적자》인듯이 놀아대는 박수무당 황가이니 박정회를 제 할에비처럼 숭상하는 《자한당》이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신》독재자는 박씨고 박수무당은 황씨이니 어떻게 적자가 된다는건지? 하긴 보수라는 드물통에서 생겨난 다 같고같은 구태들인데 박씨면 어떻게 황씨면 어떻게 됩니까.

그자들이 아무리 《유신》독재자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고 너두리를 꿰친다고 해도 《유신》독재자와 그 잔당들에게 침을 빨은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 해체》, 《적폐청산》을 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끝물속에는 오직 《유신》독재자의 부활만 차있는 놈들에게 차레질것이란 《유신》독재자의 종말, 그 후의말로일뿐입니다.

김정혁



《자한당》 패거리들이 부활과 재집권의 꿈을 꾸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적폐집단에 대한 민심의 분노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김정혁

《유신》님, 부디 강림하소서, 이 땅은 《유신》님이 일기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떨치던 그때가 아닙니다.

《5.16혁명》은 쿠데타로 지정하고 기강을 세우려 했던 《진금조치》는 독단과 전횡, 폭정이라 매도하고 《민주》, 《통일》을 떠들기에 《민족일보》 신문사 사장을 처형하고 폐간시킨것들을 언론탄압, 언론말살이라 욱을 합니다.

《유신》님의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18년의 《유신》시대를 유지했다는것을 백성들

《자한당》도 이렇게 《장성》한게 아닙니다.

그 나날에 미국어른에게 유홍장건설을 허가해준 1961년 워커힐사건, 1966년의 사카린밀수사건, 일본에 제주도의 땅을 녹거리로 팔아먹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부정사건, 신하들에게 호화아파트를 나누어준 1978년 아바르 특혜분양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하지만 《유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간재했길래 백성도 《존재》한것 아닙니다.

우리는 먼산의 방귀소리로 여길뿐입니다.

《유신》님의 분신이신 《그네》공주가 득세하였을

《유신》님, 부디 강림하소서, 이 땅은 《유신》님이 일기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떨치던 그때가 아닙니다.

《5.16혁명》은 쿠데타로 지정하고 기강을 세우려 했던 《진금조치》는 독단과 전횡, 폭정이라 매도하고 《민주》, 《통일》을 떠들기에 《민족일보》 신문사 사장을 처형하고 폐간시킨것들을 언론탄압, 언론말살이라 욱을 합니다.

《유신》님의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18년의 《유신》시대를 유지했다는것을 백성들

《유신》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2의 5.16을 해서라도 《그네》공주를 다시 보셔다 당시의 시대록 꼭 부활시키겠습니다.

정 안되면 내라도 《유신》님의 《적자》가 되어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유신》독재자의 《적자》인듯이 놀아대는 박수무당 황가이니 박정회를 제 할에비처럼 숭상하는 《자한당》이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신》독재자는 박씨고 박수무당은 황씨이니 어떻게 적자가 된다는건지? 하긴 보수라는 드물통에서 생겨난 다 같고같은 구태들인데 박씨면 어떻게 황씨면 어떻게 됩니까.

그자들이 아무리 《유신》독재자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고 너두리를 꿰친다고 해도 《유신》독재자와 그 잔당들에게 침을 빨은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 해체》, 《적폐청산》을 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끝물속에는 오직 《유신》독재자의 부활만 차있는 놈들에게 차레질것이란 《유신》독재자의 종말, 그 후의말로일뿐입니다.

김정혁



《유신》님, 부디 강림하소서, 이 땅은 《유신》님이 일기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떨치던 그때가 아닙니다.

《5.16혁명》은 쿠데타로 지정하고 기강을 세우려 했던 《진금조치》는 독단과 전횡, 폭정이라 매도하고 《민주》, 《통일》을 떠들기에 《민족일보》 신문사 사장을 처형하고 폐간시킨것들을 언론탄압, 언론말살이라 욱을 합니다.

《유신》님의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18년의 《유신》시대를 유지했다는것을 백성들

《유신》님, 부디 강림하소서, 이 땅은 《유신》님이 일기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떨치던 그때가 아닙니다.

《5.16혁명》은 쿠데타로 지정하고 기강을 세우려 했던 《진금조치》는 독단과 전횡, 폭정이라 매도하고 《민주》, 《통일》을 떠들기에 《민족일보》 신문사 사장을 처형하고 폐간시킨것들을 언론탄압, 언론말살이라 욱을 합니다.

《유신》님의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18년의 《유신》시대를 유지했다는것을 백성들

《유신》님, 부디 강림하소서, 이 땅은 《유신》님이 일기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떨치던 그때가 아닙니다.

《5.16혁명》은 쿠데타로 지정하고 기강을 세우려 했던 《진금조치》는 독단과 전횡, 폭정이라 매도하고 《민주》, 《통일》을 떠들기에 《민족일보》 신문사 사장을 처형하고 폐간시킨것들을 언론탄압, 언론말살이라 욱을 합니다.

《유신》님의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18년의 《유신》시대를 유지했다는것을 백성들

《유신》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2의 5.16을 해서라도 《그네》공주를 다시 보셔다 당시의 시대록 꼭 부활시키겠습니다.

정 안되면 내라도 《유신》님의 《적자》가 되어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유신》독재자의 《적자》인듯이 놀아대는 박수무당 황가이니 박정회를 제 할에비처럼 숭상하는 《자한당》이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신》독재자는 박씨고 박수무당은 황씨이니 어떻게 적자가 된다는건지? 하긴 보수라는 드물통에서 생겨난 다 같고같은 구태들인데 박씨면 어떻게 황씨면 어떻게 됩니까.

그자들이 아무리 《유신》독재자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고 너두리를 꿰친다고 해도 《유신》독재자와 그 잔당들에게 침을 빨은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 해체》, 《적폐청산》을 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끝물속에는 오직 《유신》독재자의 부활만 차있는 놈들에게 차레질것이란 《유신》독재자의 종말, 그 후의말로일뿐입니다.

김정혁

김정혁



인민사랑의 바닷물에 뜬 《행복의 배》

—평양대 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아가서—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선 때로부터 이곳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그 건축형식이 독특할뿐 아니라 펄펄 뛰는 산물고기 맛과 좋고 영양

가 높은 갖가지 수산물로리를 만들어 봉사해주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에 소문난 이곳을 찾았다.

—최현길 평양대 동강수산물식당 일군과 나눈 이야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으로

기자: 식당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지는 국가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느낄수 있었다. 최현길: 좋은 말이다. 우리 식당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특색있는 금양봉사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세워 주신분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경에 하는 주체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내대로 평양시에 물고기식당을 하나 크게 잘 차려놓고 평양시민들에게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요리도 봉사해주고 산물고기도 팔아주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 이듬해에는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식당부지도 큼직하게 잡아주시고 수산물식당을 세계수준에서 손색없이 건설하도록 건설자들도 보내주시었으며 식당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셨다. 뿐만아니라 수산물로리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간지고 섬세하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하기에 우리 식당을 찾는 사람들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기자: 개업후 식당이 수산물로리를 특색있게 잘할수 있게 된데는 이곳 봉사일군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있을것이라고 본다. 최현길: 우리 식당에서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우리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조선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봉사기지의 하나로 만드는것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칠갑상어회국수와 칠색송어탕과 통정어탕의 진맛을 살리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왔다. 국수끓이는 시간을 여러가지로 측정하여 제일 적합한 시간을 찾아냈고 비린내가 나지 않게 회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완성하였다. 칠색송어탕, 통정어탕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끓여 인민들의 심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메기탕을 잘하는 단위들에 찾아가 경험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완성한 칠갑상어회국수와 통정어탕, 칠색송어탕을 손님들에게 봉사하니 맛이 좋다고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봉사하는 수산물로리들에 들어



가는 각종 원자재를 종이에 적어놓으면 한페지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 만든 음식들을 원가보다 훨씬 높게 봉사해주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모르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우리 식당을 찾는 각계층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그리고 저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째로는 식당의 건축형식이 매우 독특하고 훌륭하다는것, 둘째로는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는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다는것, 셋째로는 수산물이 아주 신선하다는것이다. 우리 식당에서는 평등한 물고기가 아니라 펄펄 뛰는 물고기로 로리를 만들어 봉사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수산물로리의 질을 더욱 높이고 봉사활동을 잘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이 되도록 하겠다.

저울같이 맑은 수면우물 헤가르는 환척의 배를 량상케 하였다. 그 《배》를 타고 청류벽이며 룡라인민유원지, 5월1일경기장, 옥류고 등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듯 한 느낌을 주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참으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를 반겨 맞은 조정호부원은 사람들 누구나 우리 식당에 한번 오면 가고싶지 않고 가면 또 오고 싶은 식당이라고 한다며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바다의 경치를 형성한 대형풍경화들과 《내 나라 제일로 좋

한번 오면 가고싶지 않아

아!》의 형광장식굴발을 비롯한 불장식들로 단장된 1층에 들어서니 각종 물고기들이 꼬리치며 노니는 실내수조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디선가 들려오는것만 같은 파도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흥고롭게 해주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물우물 헤가르는 배를 보는듯싶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것이 바다와 련관되어있었다. 물우물을 낚으는 갈매기를 형상한 천정등이며 크고작은 물고기수조들, 그런가 하면 구명대가 척 걸려있는 《갑

판》도 있어 말그대로 바다를 헤가르는 배를 램 심정이었다. 수산물식당으로서의 특색을 잘 살렸것이 인상적이였다. 조정호부원은 인민사랑의 바다우에 뜬 《행복의 배》, 이것이 우리 식당의 종자라고 할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물고기들이 노니는 여러 수조들을 돌아보았다. 1층은 주로 축양장으로 되어있는데 바다물수조, 민물수조들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수조가 있었다. 각이한 형태와 크기의 수

조들에서 칠갑상어, 칠색송어, 통정어, 금잉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은 볼수록 호호했다. 그런가 하면 자라, 대게, 랑게, 조개류들이 보관되어있는 수조들도 있었다. 양어장에서 다 자란 물고기들이 이곳 수조들에 옮겨져 산채로 보관되어있다가 로리로 조리되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것이였다. 튀니튀니해도 제일 볼만 한것은 대형수조에서 잠수함처럼 목적하게 물밀을 헤가르며 다니는 칠갑상어들이였다. 칠갑상어들이 굉장히 크다는 우리의 말에 조정호부원은 무게가 200kg이상 나가는것도 있다고, 칠갑상어의 수명을 100년정도 보는데 이 칠갑상어들은 30년을 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니 아직 《청춘》이라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량어수조에서 들은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신께서는 제기밥을 드시면서도 우리



바다물고기, 민물고기 여기 에 다 모였나

이곳 식당에는 수산물 가공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도 있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았다. 우리가 상점안에 들어서니 수산물가공품보관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이 이채를 띠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만난 김미향봉사원은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자기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신선한 물고기들을 봉사받고있다고 말했다. 그 가지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지금 진렬된 수산물가공품의 수는 60여가지라는데 것이다.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칠갑상어, 칠색송어, 쏘가리, 량어, 통정어와 같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들을 많이 사간다고 한다. 그중에서 쏘가리를 가리키며 쏘가리는 맛과 영양학적가치에 있어서 민물고기들중에서 으뜸이라고, 비린내가 적고 잔가지가 많지 않아 먹기 좋은 쏘가리로 전, 구이, 회, 죽임, 탕 등 각종 로리를 만들어 먹을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쏘가리를 자주 먹으면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간질병에 특효가 있으며 로화를 방지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하



당기였다. 특히 조선동해의 담촌 앞바다에서 천연미생물을 먹고 자란 보라섬조개는 녀성들의 건강과 미용에 아주 좋고 로화를 방지하며 시력을 보호해줄뿐아니라 어린이들의 뼈발육과 성장에 대단히 좋은것으로 하여 보라섬조개가 가공품들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또한 말린설조개살, 말린맛살, 말린나지, 말린명태 등 말린물고기제품들과 손님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금산로젓갈들 등 없는것이 없을상상였다. 동해와 서해, 민물 등 온 나라의 물고기들과 그 가공제품들이 다 모인듯싶은 이곳 상점을 가리켜 사람들이 《수산물백화점》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것이 우연치 않았다. 본사기자 김진혁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들어서니 특색있는 식사실들이 꾸려져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중에서도 1층에 꾸려진 국수식사실과 황금해식사실은 사람들의 발길이 제일 많이 가닿는 곳이다. 환하게 트인 창가너머로 시원하게 안겨오는 대동강과 주변경치를 바라보며 음식을 들수 있게 꾸려진 국수식사실에 들어서니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칠갑상어회국수, 통정어회국수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식당을 찾아오시였을 때 국수식사실도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식당에서는 어디에서도 흥배낼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음식을 해서 인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곳 식당의 리영희봉사원은 이 하는 말이였다.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국수식사실을 둘러보니 식탁들마다에 회국수를 먹는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소개되어있는것이 인상적이였다. 리영희봉사원은 회국수를 먹을 때 꾸미에 놓여있는 회를 한접 들어 여러번 씹어서 회맛을 느낀 다음 양념과 꾸미, 국수가 골고루 섞이도록

본사기자 흥흥식

버무려 먹어야 그 진맛을 느낄수 있다고, 육수를 회국수에 부으면 양념장이 물에 풀리면서 회국수로서의 고유한 맛이 덜하고 비린내가 날수 있으므로 국수에 붓지 말고 조금씩 무추김을 하는 식으로

바라보며 산해진미 맛본다

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칠색송어는 영양가가 높은 좋은 물고기라고, 물고기종자를 없앨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길러서 우리 인민들이 먹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

였습니다. 봉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금해식사실에서 칠색송어탕을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느껴지는바가 컸다. 우리도 이곳에서 손님들과 어울려 칠색송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로리를 맛보았는데 감미롭고도 독특한 그 맛이 절로 나갔다. 여기저기서 《마치 대동강의 푸른 물우에 앉아서 제 손으로 잡은 물고기로 로리를 만들



본사기자 김춘경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펼쳐

공화국의 미더운 태권도 선수들이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전 기자는 함삼국 조선태권도위원회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난 8월말 발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공화국선수들이 나라별종합순위에서 1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한다.

함삼국: 이번에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최성민, 청소년, 로장부류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나라별 종합 우승컵

과 부류별 우승컵을 제정하였다.

그 우승컵을 쟁취하기 위해 7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970여명의 우수한 남녀 태권도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기록적인 수자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30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팀은 성인, 청소년부류 경기에만 참가하였는데 다른 팀에 비해볼 때 참가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로씨야, 그리스, 체코, 벨라리아, 아르헨티나 등 태권도실력이 비교적 높다고 하는 팀들에서는 금메달수가 늘어난 이번 선수권대회 나라별 종합우승컵을 쟁취하기 위하여 한개의 세부종목에 한명이상이 참가하게 하는 원칙에서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었는데 선수만도 100명이상이었다.

기자: 경기가 시작부터 대단히 치열했다고 하는데...

함삼국: 그렇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통경기에서 10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첫 걸음을 신실있게 뒀다.

우리 여자선수들은 단체맞



남자개인맞서기 51kg급, 57kg급, 63kg급도 그렇지만 69kg급경기에서 우수한 림도성 선수는 체격이 큰 선수들의 원력전에도, 체격이 작은 선수들의 재빠른 기술전에도 끄떡하지 않고 반공격을 과감히 들이대어 소년장수라고 불리었다.

여자선수들도 개인맞서기

여러개의 몸무게급경기에서 우승하여 우리 팀의 성과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여자개인맞서기에서 1위를 한 김현아선수는 마지막까지 경기를 책임적으로 잘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번 경기대회의 나라별종합순위 우승컵, 성인, 청소년부류 우승컵과 개인기술상을 모두 우리 선수들이 쟁취하였다. 금메달도 2위를 한 림도보다 20개나 더 많이 쟁취한것으로 하여 압도적인 실력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은 수십년동안 이어온 나라별종합순위 1위팀의 영예를 또다시 펼치었다.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사들과 감독들은 저마다 조선의 태권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선수들이 부럽다. 조선이 계속 앞서나가기를 바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계속 힘차게 펼쳐나 가겠다.

거적으로도 대내외사우경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바로 그 경기들이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략칭 WMC)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시간에 제일 많은 우연단어를 기억함으로써 기네스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김형직사범대학 생명과학부 2학년생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시간에 제일 많은 우연단어를 기억함으로써 기네스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중서에는 2018년 12월 22일에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2018년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리성미선수가 15분동안에 기억한 우연단어가 302개로서 제일 많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두뇌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는것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에서 두뇌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고있으며 세

공화국의 리성미 학생 기네스세계기록에 등록

세계적으로 대내외사우경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바로 그 경기들이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략칭 WMC)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시간에 제일 많은 우연단어를 기억함으로써 기네스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중서에는 2018년 12월 22일에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2018년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리성미선수가 15분동안에 기억한 우연단어가 302개로서 제일 많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두뇌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는것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에서 두뇌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고있으며 세



리성미학생 (오른쪽에서부터 첫번째)

활발히 벌어지는 제자원화사업

공화국에서 폐철물을 재자원화하여 나라살림에 보탬을 주는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내의 현실적요구에 부합되는 파수지열분해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연유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평양화력발전원합기업소

에서 백색연재를 주원료로 하여 단열벽돌을 생산하고 보이라의 보온에 적극 이용하고있다.

평양구두공장에서도 합성 가죽구두에 쓰이는 광택제의 조성을 새롭게 밝혀내고 집중의 탈로 탈단백분해물을 만들었으며 아크릴수지유약 용액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을철에 들어서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져 사람들이 속에서 감기에 걸릴수 있는 확률이 크다.

감기에는 유행성 감기와 보통감기가 있는데 보통감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보통감기는 여러 가지 비루스와 세균 감염에 의하여 상기도에 급성카타르스염염증이 생기는데 그로 인하여 주요증상(코물,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의 기도점막에 있던 비루스와 세균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비루스나 세균에 의하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질병에 쉽게 걸린다.

실용적인 광택제를 만들어냈다. 가족구두의 미적효과를 높이고 질개선에 이바지하는 구두광택제제조기술은 탈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실용적인 기술인것으로 하여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 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본사기자

감기와 그 예방

가을철에 들어서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져 사람들이 속에서 감기에 걸릴수 있는 확률이 크다.

감기에는 유행성 감기와 보통감기가 있는데 보통감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보통감기는 여러 가지 비루스와 세균 감염에 의하여 상기도에 급성카타르스염염증이 생기는데 그로 인하여 주요증상(코물,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의 기도점막에 있던 비루스와 세균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비루스나 세균에 의하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질병에 쉽게 걸린다.

높은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대령강장성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 유적들 가운데는 대령강장성도 있다. 이 장성은 서북부의 대령강을 자연해자로 하여 쌓은 고구려말기의 성이다.

총연장길이가 약 600리에 달하는 대령강장성은 고구려의 수도를 지키기 위한 중심방어시설의 하나로 구축

뛰어난 감각적지혜를 지닌 조선민족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음색과 음질, 음조 그리고 각이한 곤충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연의 리치를 밝혀내려는 뛰어난 감각적지혜를 지니고있었다.

집적마에서 떨어지는 비소리의 크기와 비줄기의 굵기 같은것을 보고 비줄에 뒤달의 배나무잎이 떨어질것이고 비가 그치면 고추가 독이 오를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곤충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가을이 절이하는 정도를 갈라붙출 않았는데 돌담에서 벌레가 울면 고추를 말려야 할 절이고 울안의 나무뿌리에서

옛이야기 속 담과

옛날에 한 소년이 아홉살에 장원급제하여 작은 고을의 원이 되었다.

그러나 고을 리방은 나이가 어리다고 원을 깔보며 제마음대로 백성들에게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여놓고 리방에게 일었다.

《리방은 발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잘라다주시오. 자른 수수대는 반드시 소매속에 넣어가지고 오시오.》

나이는 어리도 원의 명이라 리방은 수수대에 가서 수수대를 잘랐는데 길에서 원의 말대로 소매속에 넣을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한쪽팔만 소매속에 넣고 나머지는

고추가 커야만 맵나

고추는 커야만 맵은것이 아니라 작아도 맵다는 뜻으로 《꼭 큰것이랴라 제구실을 다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되묻는 투로 비겨 이르는 말.

옛날에 한 소년이 아홉살에 장원급제하여 작은 고을의 원이 되었다.

그러나 고을 리방은 나이가 어리다고 원을 깔보며 제마음대로 백성들에게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여놓고 리방에게 일었다.

《리방은 발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잘라다주시오. 자른 수수대는 반드시 소매속에 넣어가지고 오시오.》

나이는 어리도 원의 명이라 리방은 수수대에 가서 수수대를 잘랐는데 길에서 원의 말대로 소매속에 넣을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한쪽팔만 소매속에 넣고 나머지는

지명(과) 그 유래

래천군 통흥리

옛 기록에 의하면 평안북도 래천군 통흥리에 효자로 소문난 류지학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어머니없이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는 아버지의 병구완을 위해 3년세월을 하루같이 강에 나가 잉어를 잡았다.

그리고는 제손으로 잉어탕을 성의껏 만들어 대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굉장히 큰 잉어 한마리를 낚게 되었다.

잉어탕을 맛있게 드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류지학은 절로 마음이 호호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잉어가 눈물 같은것을 주르륵 흘리는것이였다.

마음이 착한 류지학은 잉어를 불쌍히 여겨 도로 강에 놓아주었다.

유망이

시아버지의 《국타발》

집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국사발을 들고 사반사반 들어와 시아버지의 밥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국을 받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다른걸 가져오거라. 너무 뜨겁다.》

며느리가 다른 국을 들여왔으나 시아버지는 또 머리를 가로저었다.

은향아리 (2)

글 리 상 결, 그림 채 대 성

어느날 뽀나무밭에서 일할 때였다.

《애들아! 하늘이 푸른것은 무엇때문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고 어머니가 두 아이들에게 물었다.

뜻밖에 묻는 어머니의 말에 동생인 학범이가 《그것은 애초에 푸르게 생겼으니 푸르지요 뭐.》하고 제사 세상리치를 다 안다는듯 으시내며 대답하는것이였다.

학생은 어머니의 뜻밖의 물음과 동생의 일빠른 대답에 어리둥절한채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만 쳐다볼 뿐 대답이 없었다. 이러한 두 아이들을 대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하였다.

《하늘이 푸른 리치는 그것이 끝갈데 없이 높기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들도 저 하늘처럼 뜻을 높이 세우고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장차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이러한 가르침은 값진 자양분이 되어 두 형제의 가슴속에 거침없이 흘러들었다.

어느날 두 아이들을 데리고 터밭에 거름을 날라내던 어